

TV조선 중방극 '빨간풍선' 서지혜, 극본도 안보고 출연한 까닭

'막장대모' 문영남작가와 호휴, 중년 여성들의 열띤 호응 불륜녀 연기 "배우로서의 도전과 작가의 믿음으로 선택"

배우 서지혜(38)는 TV조선 중방극 '빨간풍선' 극본도 보지 않고 출연을 결정했다. 그동안 지적적이고 도시적인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막장 대모'로 불리는 문영남(63) 작가와 작업은 의외였다.

더욱이 불륜녀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적잖이 부담이 됐을텐데 "배우로서 도전하고 싶었고, 작가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돌아봤다. 40대를 앞두고 기존 이미지를 깰 뿐 아니라, 종편 주말극 주시청층인 중년 여성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좀 더 과감하게, 용기있게 해도 될 것 같다"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털어놨다.

"작품을 선택할 때 극본이 없었다. 전체 줄거리를 잘 몰랐고, 인물 관계도와 캐릭터 설명 정도만 보고 출연했다. 문 작가님이 워낙 대작가님이라서 같이 한 번 작업해보고 싶었다. 미팅할 때 '은강은 0부터 100까지 감정을 다 쓸 수 있다'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하얀 도화지로 와라'고 해 도전하고 싶었다. 물론 작품 하는 내내 되게 힘들었다. '현타'가 올 때도 있었고, 내가 너무 연기를 못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연기를 만족하는 배우는 없지만, 이번 작품은 더 심했다. 그래도 주변에서 '색다르다'고 얘기해줘서 참 다행이다."

이 드라마는 우리 모두가 시달리는 상대적 박탈감, 배 아픈 욕망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달래려 몸부림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문 작가와 진형욱 PD는 '수상한 삼형제'(2009~2010) '왕가네 식구들'(2013~2014) '왜그래 풍상씨'(2019)에 이어 네 번째 의기투합했다. 1회 3.7%(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입소문을 타 20회는 11.6%로 막을 내렸다. 서지혜는 교사가 꿈인 '조은강'을 연기했다. 20년 지기

'한바다'(홍수현)의 남편인 피부과 의사 '고차원'(이상우)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 기존 작품과 달리 첫 번째 여주인공을 불륜녀 캐릭터로 설정해 신선함을 줬다.

서지혜는 "주인공은 무조건 착해야 한다"는 클리셰를 부순 드라마라며 "공감된다기 보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는다.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든 악을 잠재우고, 선을 많이 끼입어내려고 한다. 은강은 그렇게 살다가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나름대로 자신의 것을 찾고자 했다. 사실 주인공은 욕을 먹지 않는데, (빨간풍선은) 주인공을 욕하게 만드는 드라마 아니냐. 방송 전까지 불안했지만, 중반부터 '차라리 욕을 먹자'고 마음 먹었다. 욕하면서 카타르시스도 느꼈으면 했다"고 털어놨다.

"예전에는 불륜녀 연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욕하면서 때렸다고 하더라. '나 이리다가 등짝 스매싱 맞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다행히 그런 적은 없었다. 촬영할 때 지나가는 분들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응원해줬고, 은강이가 불쌍하다고 공감하는 분들도 많았다"며 "이번에 중년 시청자들의 반응을 많이 느꼈다. 나의 인지도에서 연륜층이 많이 올라간 느낌이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했다.

물론 연기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문 작가·진 PD와 이야기를 나누며 캐릭터를 만들어갔다. 1~4회까지는 은강이 연하남을 쫓아다니며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할 때는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착할까?" 싶었다. 답답하고 구구마 먹은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서지혜가 은강이를 봤을 때 '왜 친구인데 저런 얘기를 못할까?' 답답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았다"면서도 "내가 저런 환경에 있다면 '과연 서지혜처럼 얘기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 못했을 것 같다. 나도 솔직한 편이지

만, 한편으로 말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은강은 자존감이 낮고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륜녀를 연기하며 시청자를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은강은 설득할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설득하려고 하기 보다는, 있는 극본 안에서 은강이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한 신에 감정이 2~3가지 들어갈 때가 많았다.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일까 싶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았다"고 귀띔했다. "은강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고 매번 남을 위해 희생하고 참았다. 이제는 '자신을 조금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말이 그렇게 나와서 다행"이라며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지 않느냐. 친구 관계는 20년 동안 매번 좋을 순 없다. 은강과 바다도 그 과정을 보여줘 용서보다 화해라고 얘기하고 싶다. 불륜이 자리 잡혀 있지만, 같이 한 세월이 있어서 화해의 결말이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문 작가는 작품 캐릭터명이 독특하고 대사가 긴 걸로 유명하다. "우리 엄마가 작가님 이름은 기억 못해도 캐릭터명 특이하게 쓰는 분으로 알더라"면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와 맞게끔 이름을 지어서 재미있었다"고 짚었다. "대사가 많은 만큼 고생하면서 찍었다. 수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했는데, 다행히 잘 나왔다"며 "처음에 수현 언니가 (대사가 길어서) '뜨악' 했다. 나도 나올 것 같아서 긴장 아닌 긴장을 했는데 '역시냐'였다. 카페에서 수현언니가 거의 NG없이 하는 걸 보고 나도 더 열심히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서지혜는 지난해부터 워밍업 없이 달려왔다. '키스 식스 센스'부터 '아다마스', '빨간풍선'까지 지난해만 세 작품에 출연했다. "그동안 많이 달려와서 조금 쉽표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체력적으로 고갈된 느낌이 들어서 잠시 쉬다가 곧 작품을 할 것"이라며 "코미디를 해보고 싶다. 예전엔 시트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없어서 아쉽다"고 귀띔했다. 빨간풍선 출연 후 연애·결혼관이 달라진 점도



있지 않을까. "아직 결혼을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그래서 그런지 작품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답했다.

"연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다. 재미가 없다면 이렇게 오래 못했을 것 같다. 그동안 운이 좋아서 좋은 캐릭터 맡을 수 있었다. 다양

한 캐릭터를 통해 스펙트럼을 넓히는 건 배우의 본능이 아닐까 싶다. 잘하든 못하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고 배우 가는 것 같다. 예전부터 가늘고 길게 가고 싶었다. 지금까지 꾸준히 연기할 수 있는데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폭행 논란 황영웅 '볼트' 결승 1차 1위... "상금 기부할 것"



가수 황영웅이 '상해 전과' 등 과거 폭행 논란에도 종합편성채널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볼타는 트롯맨'(볼트) 결승 1차전에서 선두에 나섰다.

황영웅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볼타는 트롯맨' 8회 결승 1차전 대결에서 대표단과 시청자 실시간 문자 투표 합산 결과 총점 1528점으로 1위에 올랐다.

황영웅은 최근 일련의 논란을 의식한 듯 "감사하고 죄송하다. 혹시나 제가 다음 주 최종 1

"제작진, '황영웅 가사실수 감춰다' 내용 추가 접수"

위가 되면, 상금은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황영웅은 과거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파장이 커지자 그는 지난달 25일 상해 전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하며 사실상 하차를 거부했다.

제작진 역시 유력한 우승후보인 황영웅 감싸기 모드에 들어갔다. 황영웅 하차와 관련 제작진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볼타는 트롯맨' 홈페이지 등에 혐의가 빚발쳤다.

특히 황영웅에 대한 제작진 '밀어주기 의혹' 관련한 잡음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미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수신권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전해졌는데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황영웅의 실수를 감춰다는 내용의 민원도 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지난 1월10일 방송된 '볼타

는 트롯맨' 4회에서 황영웅이 '1대1 라이브전'에서 남진의 '빈 지게'를 불렀을 때를 문제 삼고 있다. 황영웅이 해당 노래에서 "지난날의 사람아"라고 부른 대목의 가사가 원래는 "지난날의 사랑아"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작진이 '볼타는 트롯맨' 다른 출연자의 가수 실수는 빨간 자막으로 부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황영웅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이를 그냥 넘겨 그를 두둔한 것이 아니냐고 일부에선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심위엔 '황영웅 밀어주기' 관련 각종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황영웅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은 '볼타는 트롯맨' 최종 순위를 가리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일 결승 2차전을 치른 뒤 결승 1차전 결과와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만약에 황영웅이 우승해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원, 세계 밥장사 도전... '장사천재 백사장'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이 본업으로 글로벌 진출을 시도한다.

케이블 예능 채널 tvN은 백종원의 세계 밥장사 도전기 '장사천재 백사장'(연출 이우형)을 론칭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사천재 백사장'은 일명 '백종원의 세계 밥장사 도전기'다. 백종원이 한식 불모지에서 직접 창업부터 운영까지 나서는 과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백종원은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 사업뿐 아니라, 지역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tvN은 "그런 의미에서 '장사천재 백사장'은 백종원의 '본격 본업 등판'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국내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이 과연 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밥장사를 해나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백종원 아프리카, 이탈리아 등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리에 능한 배우 이장우, 최근 '예능 대세'로 떠오른 그룹 '갯세븐' 멤버 뱀뱀이 함께 한다.

'프로 방송인'이기도 한 백종원과 tvN의 조합은 낯설지 않다. '집밥 백선생' 시리즈,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시리즈, '먹고자고먹고', '고급식왕', '백패키' 등을 함께 했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백종원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요리를 배우거나 미션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뤘다.

'장사천재 백사장'은 올 상반기에 첫 방송된다.

엑소, 4년4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 시동

한류 그룹 '엑소(EXO)'가 4년4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의 시동을 건다.

1일 소속사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는 오는 4월 8~9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 돔(KSPD DOME)에서 데뷔 11주년 기념 팬미팅 '엑소 클락(EXO' CLOCK)'을 연다. 같은 달 15~16일 일본 사이타마 베틀루나 돔에서도 팬미팅을 연다. 현지에서 팬미팅을 여는 건 5년 만이다.

이번 팬미팅엔 최근 소집해제 된 백현을 비롯 수호, 시우민, 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등 엑소 멤버 8명이 전원 참여한다. 엑소의 완전체 활동은 지난 2018년 12월에 내놓은 정규 5집 리패키지 타이틀곡 '러브샷' 이후 처음이다. 엑소는 올해 새 앨범도 내놓는다. 정규 7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정규 6집 '옵세션(OBSESSION)', 2021년 6월 스페셜 앨범 '돈트 파이팅 더 필링(DON'T FIGHT THE FEELING)'은 일부 멤버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25세대 K팝 그룹인 엑소는 3세대 K팝 그룹부터 본격화된 세계관의 시조를 다진 팀으로 평가 받는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역시 '중꺾마'...박스오피스 1위 탈환

누적관객수 364만4128명... '너의 이름은.' 기록경신 도전

일본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열기가 꺾이지 않고 있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전날 전국 824개 스크린에서 관객수 3만6009명을 불러들이며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했다.

지난 1월4일 개봉한 이 애니메이션은 주로 2위를 차지하다가, 23일 만인 그 달 27일 1위로 올라섰다. 지난달 14일까지 정상을 유지하다 같은 달 15일 개봉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페이즈5의 첫 작품 '엔트맨과 오스

프: 퀴텀메니아에게 정상을 내줬다.

이후 '엔트맨과 오스프: 퀴텀메니아'는 그 달 27일까지 1위를 지켰는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뒷심을 발휘하며 다시 정상에 올라선 것이다. 또 역주행하며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원조로서 이름을 높여 주목하고 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현재 누적관객수는 364만4128명이다. 이 같은 기세라면,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인 '너의 이름은.'(2017)의 379만명 기록을 이번 주말에 꺾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밀려 2위로 주저앉은 '엔트맨과 오스프: 퀴텀메니아'는 전날 1036개 스크린에서 관객 3만5192명명을 끌어모았다.